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독교 종교성 척도의 타당화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희 정

기독교 종교성 척도의 타당화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희 정

인 준 서

김희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김정규(1988)가 개발한 기독교 종교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 하기 위한 연구이다. 종교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기독교 종교성 척도는 정통주의, 신뢰주의, 사회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무신론, 종교적 불안, 의미추구의 8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천주교 192명, 개신교 217명, 무종교 16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측정도구로는 기독교 종교성 척도, K-BDI, K-SAIT, 점측경계 혼란 척도, SCL-90R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α 값은 .70~.90으로 높은 편이었다. 둘째, 개신교와 천주교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ANCOVA를 한 결

과, 종교성 하위척도 신뢰주의, 사회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무신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개신교, 천주교, 무종교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ANCOVA를 한 결과 무신론, 종교적 불안, 의미 추구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개신교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의 차이 검증을 위해 ANOVA를 한 결과, 종교성 하위척도 무신, 의미추구, 종교적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김정규(1988)이 개발한 기독교 종교성 척도는 신뢰도가 높고 구성타당도 및 기준 타당도 등에서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성 척도라는 한계로, 다양한 종교와 무종교인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연구를 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6
1. 종교성의 구성 개념	6
2. 기존의 연구에서의 종교성 측정	8
3. 종교성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련성	11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평가도구	18
1) 종교성 척도	18
2) 접촉경계 혼란 척도	18
3)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19

4)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20
5) 간이정신진단검사	20
3. 자료분석.....	21
IV. 연구결과	22
1. 기독교 종교성 척도의 신뢰도 및 문항분석.....	22
2. 기독교 종교성 척도의 구성타당도.....	27
1) 종교성 하위척도들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27
2) 기독교 종교성과 접촉경계 혼란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28
3) 기독교 종교성과 BDI, SAIT, SCL-90R과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29
3. 기독교 종교성 척도의 기준 타당도	30
1) 개신교와 천주교인의 집단 차이 비교	30
2) 천주교와 개신교, 무종교 집단의 차이 비교	31
3) 개신교 여성의 임상집단(우울·불안 환자)과 비 임상집단의 차이 비교	34
V. 논의 및 제언	3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김정규(1988) 종교성 척도의 구성 개념	7
<표 2> 기존 연구의 종교성 측정도구	9
<표 3> 인구 통계학적 특성 종교*성별 구성	15
<표 4> 종교인 통계학적 특성 종교모임 빈도*종교별 구성	16
<표 5> 종교인 통계학적 특성 성별*연령별 구성	16
<표 6> 종교인 통계학적 특성 성별*학력별 구성	17
<표 7> 종교인 통계학적 특성 성별*소득별 구성	17
<표 8> 접촉경계 혼란 하위영역별 측정내용	19
<표 9> 하위영역별 공격성 문항 구성 및 신뢰도	19
<표 10> 정통주의 종교성 문항분석	23
<표 11> 종교적 신뢰 종교성 문항분석	23
<표 12> 종교적 사회주의 종교성 문항분석	24
<표 13> 경건주의 종교성 문항분석	24
<표 14> 신비주의 종교성 문항분석	25
<표 15> 무신론 종교성 문항분석	25
<표 16> 종교적 불안 종교성 문항분석	26
<표 17> 의미추구 종교성 문항분석	26
<표 18> 기독교 종교성 하위 척도 간의 상관관계	28
<표 19> 기독교 종교성 척도와 접촉경계 혼란 척도와의 상관관계	29
<표 20> 기독교 종교성 척도와 BDI, STAI, SCL-90R과의 상관관계	30
<표 21> 천주교, 개신교 간의 종교성 차이 검증	31
<표 22> 천주교, 개신교, 무종교 간의 종교성 차이 검증	32
<표 23> 비임상집단과 임상집단(우울.불안 환자)의 종교성 차이 검증	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종교는 신념, 철학, 윤리의 체계, 문화 차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학, 철학, 심리학에서 합의된 종교 정의가 없으며(Eliade, 1987; 강 에스더, 2005), 이 때문에 종교에 대한 확실한 심리학적 정의를 내리는 대신(Wulf, 1991; 강 에스더, 2005), 인간 신앙성에 대한 각각의 측면만을 설명하고 있다(강 에스더, 2005)고 한다. 종교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인간 신앙성의 측면이 종교성으로, 종교성이란 일반적으로 “종교적 성향”을 의미하며,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개인들의 성향을 말한다. 즉, 조직이나 집단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개인의” 종교적 성향과 정도를 의미한다(한내창, 2001). 종교성은 종교의 개념이 광범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신념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또 종교마다 서로 다른 조직, 관습, 관행, 신념구조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강 에스더, 2005).

많은 심리학자들이 일찍부터 종교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종교성이 범 죄라든가 도덕성 혹은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김정규, 2007). 종교와 심리치료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방법론에서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으나 심리치료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경감시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문제들은 많은 부분 심리적, 정신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심리치료에서 다루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 문제들은 영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김정규, 2007).

2004년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53.3%가 종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97년과 비교해서 5.4% 증가한 것이며, 84년과 비교해서는 10% 증가하였다. 이처럼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오히려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명수(2005)는 학자들의 논의가 특히 경제문제의 불확실성에 집중되어 있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은 핵심 요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한다. 경제문제가 해결되어도 불안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이익창출의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따라야 하는 규범적 존재가 됨으로써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고 한다. 즉, 불확실성 자체 보다는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가 불안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인의 경쟁과 불안은 심화되고 있고, 이를 종교를 통해 해소하려는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여전히 종교가 현실에서 갖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교성은 그 역할이 약화되어 보이는 현대에도 심리학자가 연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심리학자들은 종교성에 대해 많은 경험적 연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과거에는 일치되지 않는 편이었다. Bergin(1983)은 1951년부터 1979년 사이의 종교와 정신건강관련 연구 23개를 분석하였는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47%,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23%, 나머지 30%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규(2007)는 Christ(1961), Kalish(1963), Templer & Dotson(1970) 등의 연구에서는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wenson(1961), Jeffers, Nichols & Eisdorfer(1961), Munichs(1966), William & Cole(1968), Shearer(1973), Feifel & Branscomb(1973), Wittkowski & Baumgaertner(1977) 등의 연구에서는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종교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할 때, 종교성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Allport and Ross, 1967; Schumaker, 1992; Ventis, 1995). 어느 하나 만에 의해 종교성을 측정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성을 파악하는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하겠다(한내창, 2001). 어떤 신념 또는 태도나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이원규, 1997). 이러한 논란에 대해 Allport(1967)와 Luessi(1979) 등은 종교성은 서로 성격을 달리 하는 여러 형태의 종교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김정규, 2007), Allport(1967)는 종교성을 ‘성숙한 종교성(intrinsic religiosity)’과 ‘미성숙한 종교성(extrinsic religiosity)’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Allport(1967)의 가설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Boss Nuenning, 1972; King & Hunt, 1975; Stahlberg, 1978; 김정규, 2007)다.

그러나 Kim(1988)은 Allport(1967)의 연구가 종교성을 성숙한 종교성과 미성숙한 종교성으로만 나눈 것은 너무 단순하며, 종교성을 심리학적 시각에서만 바라본 문

제점이 있다고 비판하였다(김정규, 2007). 그는 기독교의 종교성을 각각 종교사적, 신학적,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8개 종교성을 각각 종교사적, 신학적,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8개의 종교성 차원들로 구분하였고,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구분들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종교성을 다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 흐름이다(Fisseni, 1984; Kim, 1988; 김정규, 2007). 현재 다른 종교성 관련 논문들에도 다양한 차원의 종교성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Allport(1976)의 척도를 중심으로, 이와 함께 종교적 몰입성과 종교모임 빈도 등 경험연구들에서 변별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른 종교성의 구성개념들을 모아 질문에 포함하는 등, 연구자 마다 구성개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김정규(1988)의 종교성 척도와 다른 종교성 연구에 사용되는 척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과 종교학, 철학을 포괄하는 다양한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척도는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다. 종교성이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연구에 사용되는 척도들 중에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둘째, 종교성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Kim(1988)의 경험 연구에서 종교적 불안은 공격성, 우울증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무신론은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인 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연적 통제소재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현재 종교성 연구들은 Allport(1967)의 척도를 근거로 종교를 본질적으로 신앙하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규(1988)의 8개 종교성 차원을 토대로 개발된 종교성 척도가 국내에서 적용되어, 더 신뢰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독일어로 된 Kim(1988)의 종교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종교성 척도의 신뢰도에서 내적 합치도를 추정하는 Cronbach alpha, Item Total Correlation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2. 종교성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종교성 하위척도, 접촉
경계 혼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CL-90R(Symptom Check List-90-Revision)의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을 검증하여, 수렴 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종교성 척도의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두
집단을 정통주의(Orthodoxie), 경건주의(Pietismus), 신비주의(Mystizismus),
종교적 신뢰(Religioese Vertrauen), 종교적 사회주의(Religioese sozialismus)
의 다섯 가지 차원의 종교성에서 차이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4. 종교성 척도의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무종
교, 세 집단에서 의미추구(Sinnfrage), 무신론(Atheismus), 종교적 불안
(Religioese Angst)의 차이 검증을 한다.

연구문제 5. 종교성 척도의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
의 종교성 하위척도들의 차이를 검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종교성의 구성 개념

종교성의 차원에 대해, Ellison, Gay와 Glass(1989)는 종교성이 3가지 다른 차원, 즉 참여, 소속, 경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종교적 참여는 기존의 종교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 종교적 소속은 특정 종교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그 단체와 동일시하는 정도, 종교적 경건성은 개인의 믿음과 종교적 경험을 의미한다. 한내창(2001)은 여러 논문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종교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구성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봉종교인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이질성으로 설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종교 활동의 참여와 종교적 행동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Pargament et al., 1988; Bergin & Jesen, 1990; Ferraro & Albrecht-Jensen, 1991; Grasmick, Kinsey & Cochram, 1991; Petterson, 1991; Chamberlain & Zika, 1992; Larson et al., 1992; Hoge, Johnson & Luidens, 1993; Donahue & Benson, 1995; Koenig, 1997; Levin & Tobin, 1995; Amyot & Sigelman, 1996; Idler & George, 1998; Blasi, 1999; 한내창 2001). 셋째, 신념의 내용이다. 기적, 교리 내용, 사후 세계, 신 등의 신념 내용들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넷째, 종교의 중요성으로 개인의 인생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다섯째, 종교적 몰입으로 이 개념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대상과 동기에 대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개념의 적합성이 감소되고 조작화가 어렵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자신의 종교적 열성에 대한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화와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섯째는 종교적 지원이다. 종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개인들이 스트레스 생활사건(stressful life events)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할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는 종교적 신앙과 종교조직의 몰입 동기이다. Allport(1967)의

intrinsic & extrinsic 종교성이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종교성에 대해 한내창(2001)은 종교성이 종교적 친화력(신봉종교), 종교 활동에의 참여, 종교적 신념, 종교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종교적 몰입도, 종교적 그물망 및 지원, 그리고 본질/비본질 종교성 등으로, 다양한 척도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구성물(construct)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내외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부 또는 비슷한 구성개념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Kim(1988)은 종교사적, 신학적, 철학적, 심리학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종교성에 대해 연구하여, 이들이 8개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Kim(1988)의 종교성 구성개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김정규(1988) 종교성 척도의 구성 개념

차원	내용
정통주의 (Orthodoxie)	집단적 종교 정체성 차원. 교회의 실체를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교리와 전통 중요시되며, 성직자의 권위에 의한 독점적 교리해석이 이루어진다.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계율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며, 교회출석 및 세례, 성찬 등의 종교적 의례 참여 강조.
경건주의 (Pietismus)	개인적 종교 정체성 차원. 교리 또는 성직자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적인 개인적 신앙과 체험 중심. 개인의 회개와 신앙적 거듭남이 요구되며, 자기 부정적 및 금욕적.
신비주의 (Mystizismus)	초월적 차원. 궁극적 진리의 체험. 일순간 자아의식이 소멸되고 절대자와의 만남, 우주 합일을 경험하며, 경외심과 신비감, 환희의 감정 수반.
종교적 불안 (Religioese Angst)	교리 또는 종교적 학습경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원. 다른 차원들과 공존. 악마나 사탄의 존재, 지옥에 대한 공포. 죄의식이 특징.
종교적 신뢰 (Religioese Vertrauen)	교리 또는 종교적 학습경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원. 신의 은총과 사랑, 보살핌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소망이 있다. 기쁨과 감사의 확신 체험. 고통을 이겨낼 힘을 갖는다.
종교적 사회주의 (Religioese Sozialismus)	현실적 사회참여 중요시. 개인보다는 사회적 구원, 초월보다 현실참여, 책임의식과 이웃사랑의 실천 강조. 사회정의와 공동체 구현.

sozialismus)	
의미추구 (Sinnfrage)	특정 종교와 무관. 삶과 죽음의 의미, 죄와 고통의 의미, 선과 악의 의미,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며, 의미에 대한 믿음과 신뢰·발견이 체험된다.
무신론 (Atheismus)	부정적 종교성 차원. 신의 개념 배척. 종교적 세계관에 비판적. 철학적으로 고찰해보면 무신론은 유신론과 마찬가지로 교조적, 이데올로기적 성격. 종교에 대한 비판,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허무주의적 경향.

2. 기존의 연구에서의 종교성 측정

최근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종교성을 다차원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차원 측정을 위해 한 가지 척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척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Allport(1967)의 Religious를 직접 번안하여 쓰거나, 다른 학자들이 개정한 것을 번안하여 쓰기도 하고, 한내창(2001)이 다른 경험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것을 선별하거나 별도의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교성으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구성개념들을 연구자 마다 다르게 포함하고 있다. 종교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에 제시하였다.

<표 2> 기존 연구의 종교성 측정도구

연구 저자	측정 도구 및 내용	유형	문항수
한내창 (2001)	신봉종교, 신앙 몰입도, 종교 참여도, 신앙기간, 교리에 대한 이해도	Likert척도, 중다선택	각각 단일 문항
	종교적 그물망 및 종교적 지원	Likert 척도	11문항
	종교적 중요성 / Dudiey Dudley(1986)	Likert 척도	3문항 발췌
	Allport(1967)의 Religious Orientation Measure의 개정판 /	Likert 척도	14문항

	Gorsuch & Mcpherson(1989) 조상 제사 및 단군 숭배에 대한 태도	중다선택	5문항
한내창 (2004)	신봉종교, 신앙 몰입도, 종교 참여도, 신앙경력	Likert 척도, 중다선택	각각 단일 문항
	타종교 관용도	Likert 척도,	3문항
	Allport(1967)의 Religious Orientation Measure의 개정판 / Gorsuch & Mcpherson(1989)	Likert 척도	14문항
	가족내 종교 자유도	Likert 척도	5문항
	종교적 네트워크	Likert 척도	3문항
김광기의 (2004)	김정훈(1997) 종교성 척도 : 종교 생활 만족여부, 종교 만족, 부모 종교생활 열성여부, 종교모임참여의 자율성, 종교생활 열성여부, 종교가 생활에 도움을 주는가 등을 측정	Likert척도, 중다선택	9문항
오현숙의 (2006)	Allport(1967)의 Religious Orientation Measure/ 최영민(2002) 변안	Likert척도	20문항
강에스더 (2005)	Faulkner & De Jong (1965)의 종교성 척도 중 사상적 척도, 경험적 척도	Likert척도	9문항
	Allport & Ross (1967)의 Religious Oreintation Measure / 신혜진 (1991) 변안	Likert척도	20문항
Reinert & Bloomingdale	Spritual Experience Index (Genia, 1997)	Likert척도	23문항
Bruce E. Atkinson	Religious Status Interview (Malony, 1988) : 인터뷰 형식으로 깊은 탐색	인터뷰/ 개방형질문	32문항
Hongtu (2007)	종교 활동의 만족도, 모임 참여빈도, 신봉종교 등.	중다선택	각각 단일

			문항
King, Michael and Walter E. Xchfer. (1992)	기독교 세례여부, 소속종교, 모임 참여빈도, 신앙기간.	중다선택	각각 단일 문항
Pargament (1990)	Religious coping scale : 기독교인의 종교성과 영성, 무 종교성, 심리적 대처 행동들을 측정. 어려운 상황에서의 종교적 대처 기제에 따라 유형을 나눈다.	Likert척도	50문항
Batson (1991)	Quest scale : Allport(1967)의 Religious Orientation Measure에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차원을 추가.	Likert척도	12문항
Stryhorn (1990)	The Religiousness Scale : 종교 참여와 헌신의 수준과 신과의 관계 수준. 인간의 종교에 대한 기질을 결정.	Likert척도	12문항
Koenig (1992)	질병과 관련된 정서적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환자가 종교에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측정.	인터뷰	3문항
Samuel & Ursula(1999)	Pfeifer & Waelty (1995)의 The Religiosity Scale : Allport-Ross Religious Orientation Scale (Donahue, 1985)에서 종교적 태도 신념과 실재를 측정하는 질문 (Hark, 1984; Doerr, 1987) 20문항과 종교성 표현의 중요성을 두 가지 수준으로 측정하는 15문항 포함.	Likert척도	51문항

이처럼 Allport & Ross (1967)를 비롯하여, Genia(1997)의 Spiritual Experience Index, Pargament(1990)의 The Religiousness Scale, Batson (1991)의 Quest

scale, Stryhorn(1990)의 The Religiousness Scale 등 종교성에 관한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Kim(1988)처럼 다양한 학문의 관점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의 척도는 없다.

3. 종교성의 임상연구

우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교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Koenig (1995)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종단적 연구 모두에서 종교가 우울증 감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지지하였다. 종교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의미감이나 목적감을 증진시켜 높은 주관적 복지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지 그물망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으므로써 역시 복지감이 증진되고 우울증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노인 표본들에서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 등 기타 집단에서도 종교가 우울증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한내창, 2002). Kennedy(1998)는 Norwood - Montefior 노인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에게 있어서 신봉 종교와 예배 참석이 우울장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울장애를 측정하여 종교성과 관계를 검토한 결과 부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우울장애를 진단 받은 피험자 25,000명 중에 불안장애 공병이 있거나 없는 23,828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 및 불안장애 진단은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를 근거로 하였고, 우울장애의 심각성은 CES-D로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종교 입회 여부와 종교 활동 참여 빈도를 질문하였는데, 자주 참여 할수록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전혀 참여하는 피험자 보다 자살 사고와 정서적 고통이 유의미하게 적었고 CES-D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Chen & college, 2007).

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1988)의 연구에서 종교적 불안은 종교성의 경건주의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 우울증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의미추구는 우울증, 그리고 공격성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삶에 대한 적극성, 책임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삶에 대한 내적 통제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김정규, 2007). Razali & college(1998)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우울 및 불안 장애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사회 문화적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연

구 하였다. 비교 대상은 피험자들을 무선할당 하여 표준적인 심리치료를 처치하였다. 치료 후 결과는 종교-사회문화적 심리치료를 처치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우울과 불안이 낮아졌으나 6개월 후의 측정 결과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밖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Reinert & Bloomingdale (1999)는 성인 256명을 대상으로 영적 성숙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SEI-R(Spiritual Experiencd Index; Genia, 1997)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고, 하위 척도는 영적 지지와 영적 개방성 두 가지이다. 영적 지지는 예배 참석 빈도, 내재적 종교성, 영적안녕 및 종교적 안녕 척도(Paloutzian & Ellison, 1982), 종교적 기본 이념에 대한 신념과 높은 연관이 있고, 영적 개방성은 독단주의,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율리주의(Genia, 1997)의 낮은 점수와 관련 되어 있다. 정신건강은 TSC-40(Briere & Runtz, 1989)으로 측정하였는데, 불안, 우울, 해리, SATI(Sexual Abuse Trauma Index), 성적 문제, 수면 방해, 여섯 가지 하위 척도가 포함된다. SEI-R 측정 결과에 따라 성장-지향의, 변화하는, 독단적, 미숙한,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단적인 그룹과 미숙한 그룹은 SATI(Sexual Abuse Trauma Index)와 해리 두 가지 척도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외상경험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적 발달과 관련이 있었지만, 성장지향 그룹에도 외상경험의 피험자가 있어, 반드시 외상경험이 영적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독단적인 그룹은 미숙한 그룹 보다는 우울과 불안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지만, 성장지향 그룹은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Samuel 과 Ursula(1999)는 정서장애와 불안 장애 및 성격장애 피험자 44명과 45명의 건강한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종교성과 신경증을 측정하기 위해 아이젠크 성격검사를 실시하였고, 종교성은 51문항 척도(Pfeifer & Waelty, 1995)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피험자 집단에서 종교성의 차이와 건강한 통제 집단 사이에 종교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피험자 집단에서 삶의 만족은 종교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통제집단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Borrás (2007)와 공동 연구자들은 정신분열로 진단받은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종교적 신념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3분의 2의 환자가 영성이 매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57%는 영적 신념이 병의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정 종교가 없는 51%와 특정 종교가 있는 27%에게는 그들의 종교와 의학적 치료 사이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중요했으며, 특정 종교가 있는 8%는 그렇지 않았다. 종교와 영성은 정신분열 환자의 의학치료에 대한 태도와 병의 증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교성은 인간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고 특히 우울·불안과의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도 우울과 불안을 종교성과 관련이 높은 심리학적 구성개념으로 생각하여, 우울과 불안 및 정신건강 관련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증명하고자 하였고,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이하 STAI),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이하 SCL)을 채택 하였다. 또한 우울·불안 환자들과 비 임상집단의 차이 통해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780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설문지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표지에 별도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설문지를 혼동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된 설문지 중에 7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서 제외 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 29명의 설문지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천주교 192부, 개신교 217부, 무종교 169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인천 마음과 마음 정신과에서 불안 또는 우울장애로 진단 받은 환자 5명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정 의원에서 불안·우울 공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중 개신교 남성 2명과 천주교 여성 1명을 제외하고, 22명의 자료를 임상집단으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 표에 제시되었다.

<표 3> 인구 통계학적 특성 종교*성별 구성

n=578

연령별	성 별			전체
	무응답	남	여	
무응답	1(0.2)	0	0	1(0.2)
천주교	0	79(13.6)	113(19.5)	192(33.2)
개신교	1(0.2)	73(12.6)	143(24.7)	217(37.5)
무종교	1(0.2)	77(13.3)	91(15.7)	169(29.2)
전체	3(0.5)	228(39.6)	347(59.9)	578(100)

<표 4> 종교인 통계학적 특성 종교모임 빈도*종교별 구성

n=409

종교모임 빈도	종교		전체
	천주교	개신교	
무응답	1(0.2)	0	1(0.2)
전혀 안함	20(4.9)	2(0.5)	22(5.4)
가끔	28(6.8)	20(4.9)	48(11.7)
자주	25(6.1)	31(7.6)	56(13.7)
매주 1회	72(17.6)	74(18.1)	146(35.7)
매주 2회 이상	46(11.2)	90(22.0)	136(33.3)
전체	192(46.9)	217(53.1)	409(100)

<표 5> 종교인 통계학적 특성 성별*연령별 구성

n=409

연령별	성 별			전체
	무응답	남	여	
무응답	0	0	0	0
20대	0	66(16.1)	82(20.0)	148(36.2)
30대	1(2.0)	12(2.9)	38(9.3)	51(12.5)
40대	0	21(5.1)	65(15.9)	86(21.0)
50대	0	48(11.7)	63(15.4)	111(27.1)
60대	0	5(1.2)	8(2.0)	13(3.2)
전체	1(2.0)	152(37.2)	256(62.6)	409(100)

<표 6> 종교인 통계학적 특성 성별*학력별 구성

n=409

연령별	성 별			전체
	무응답	남	여	
무응답	0	0	0	0
초졸	0	1(0.2)	6(1.5)	7(1.7)
중졸	0	3(0.7)	12(2.9)	15(3.7)
고졸	0	60(14.7)	78(19.1)	138(33.7)
대졸	1(0.2)	70(17.1)	145(35.5)	216(52.8)
대학원졸	0	18(4.9)	15(3.7)	33(8.1)
전체	1(0.2)	152(37.2)	256(62.6)	409(100)

<표 7> 종교인 통계학적 특성 성별*소득별 구성

n=409

연령별	성 별			전체
	무응답	남	여	
무응답	0	0	9(2.2)	9(2.2)
100만원 이하	0	45(11.0)	75(18.3)	120(29.3)
100~200만원	1(0.2)	40(9.8)	60(14.7)	101(24.7)
200~300만원	0	33(8.1)	45(11.0)	78(19.1)
300~500만원	0	20(4.9)	45(11.0)	65(15.9)
500만원 이상	0	14(3.4)	22(5.4)	36(8.8)
	1(0.2)	152(37.2)	256(62.6)	409(100)

2. 평가도구

1) 종교성 척도

종교성 척도는 김정규(1988)가 독일 Bonn 대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김정규(2007)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평가 종교성 척도는 정통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종교적 불안, 종교적 사회주의, 의미추구, 무신론을 측정하는 8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08 ~ .901로 나타났다.

2) 접촉경계 혼란 척도

김정규(1988)가 개발한 종교성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접촉경계 혼란 척도(유계식, 2000)를 채택하였다. 게슈탈트치료에서 심리장애란 내사, 투사, 반전, 융합, 자의식, 편향 등 소위 ‘접촉경계혼란(contact boundary disturbance)’에 의해 이러한 연결성이 일시적으로 끊어진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심리치료란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이러한 단절된 연결성을 회복하여 다시 자기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타인, 환경, 사회, 역사, 문화, 자연, 우주, 신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Perls et al., 1951; Yontef, 1993; Polster, 2006; 김정규, 1995). 접촉경계 혼란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게슈탈트치료는 개인과 개인,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 인간과 사회,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 등의 상호 불가분성을 전제로 하는 유기체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종교적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치료이론(김정규, 2007)이라고 하였다. 이에 접촉경계 혼란이 종교성과 관련된 심리적 개념으로 8가지 종교성 차원이 심리장애의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 잘 설명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접촉경계 혼란은 Caffaro(1989)의 개정된 GCSQ-R(The revised Gestalt Contact Boundary Style)을 유계식(2000)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142문항을 김복순(2002)이 검토하여, 60문항을 선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8> 접촉경계 혼란 하위영역별 측정내용

영역	측정내용
내사	권위자의 행동이나 가치관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자기의 것으로 동화되지 못한 채 남아 개체의 행동이나 사

	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행동방식이나 가치관.
투사	자기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계 장애.
반전	바깥으로 나갈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되돌리는 것
융합	서로간의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편향	환경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접촉경계 혼란 야기.
감각차단	내적인 신체감각에 대한 자각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것.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접촉을 방해한다.

<표 9> 하위영역별 공격성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Cronbach α
내사	3, 9, 15, 21, 27, 33, 39, 45, 51, 57	.64
투사	5, 11, 17, 23, 29, 35, 41, 47, 53, 59	.69
반전	2, 8, 14, 20, 26, 32, 38, 44, 50, 56	.72
융합	7, 73, 79, 25, 31, 37, 43, 49, 55	.64
편향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59
감각차단	4, 10, 16, 22, 28, 34, 40, 46, 52, 58	.67

3)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이영호(1993)가 번역한 Beck의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Beck(1967)이 만든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우울증 정도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증후군에 걸쳐 21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 까지 이다. 10점-15점까지를 경우울증으로, 16-23점은 우울증, 24-63점까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분류한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이다.

4)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와 공동 연구자들(1970)에 의해 개발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전체 40문항 중에서 특성불안을 제외한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을 채택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다.

5)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 Symptom Check List-90-Revision, 90문항)

이 검사는 심리치료 및 향정신약물 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심리진단검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Johns Hopkins 의과대학에서 임상심리학자인 L. R. Derogatis 교수님(1973)이 만든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목록검사인 Hopkins Symptom Check List(HSCL)이 원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HSCL을 개량, 발전시켜 만든 Symptom Check List 개정판(SCL-90-R)을 김광일등(198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9개 증상차원의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에 따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9개의 증상척도는 신체화(SOM : somatization), 강박증(O_C : obsessive compulsive), 불안(ANX : anxiety), 적대감(HOS : hostility), 공포불안(PHOB : phobia anxiety), 편집증(PAR : paranoid ideation) 및 정신증(PSY : psymptom distress index) 등의 전체지표가 있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7$ 수준이다.

3. 자료분석

신뢰도 검증을 위해, 계수와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계수 및 문항제거시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종교성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교성 하위 척도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종교성 하위척도와 접촉경계 혼란, 종교성 하위척도와 BDI, STAI, SCL-90R 각 하위 척도들과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성 척도의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종교성 하위척도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무종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공변량으로 하는, ANC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과의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독교 종교성 척도의 신뢰도 및 문항분석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문항전체 상관계수와 문항제거시 Cronbach α , 척도의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김정규(1988)의 척도 개발 논문에서 정통주의는 Cronbach $\alpha = .89$, 종교적 신뢰는 Cronbach $\alpha = .97$, 종교적 사회주의는 Cronbach $\alpha = .79$, 경건주의는 Cronbach $\alpha = .79$, 신비주의는 Cronbach $\alpha = .84$, 무신론은 Cronbach $\alpha = .92$, 종교적 불안은 Cronbach $\alpha = .81$, 의미추구는 Cronbach $\alpha = .79$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계수 .72 ~ .90으로 이전 연구보다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 보였다.

그러나 문항분석을 하였을 때, 정통주의 종교성의 67번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은 $r = .152$, 종교적 신뢰 종교성의 36번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은 $r = .011$, 경건주의 종교성의 4번 문항은 $r = .273$, 종교적 불안 종교성의 31번 문항은 $r = .246$, 의미추구 종교성의 14번 문항의 $r = .209$, 32번 문항의 $r = .251$ 로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들 문항을 포함하였으나 이후에 이 척도를 사용할 때, 이들 문항의 수정을 거치거나, 신뢰도를 재측정 하여, 분석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문항분석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10> 정통주의 종교성 문항분석

n=40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계수
1	3.97 (.78)	.472	.727
7	3.72 (.77)	.479	.726
18	3.85 (.91)	.489	.724
47	3.19 (.77)	.416	.734
49	3.80 (.82)	.503	.721
58	3.99 (.75)	.583	.712
64	3.46 (.91)	.374	.741
67	3.39 (.98)	.152	.777
71	3.42 (.89)	.336	.746
75	3.64 (.82)	.473	.727

Cronbach α = .754

<표 11> 종교적 신뢰 종교성 문항분석

n=40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계수
2	3.86 (.86)	.735	.857
8	4.01 (.76)	.696	.861
19	3.90 (.78)	.771	.855
21	3.92 (.77)	.719	.859
29	3.76 (.77)	.726	.858
36	3.17 (.96)	.011	.915
48	3.94 (.74)	.515	.873
51	3.58 (.88)	.701	.859
70	3.44 (.89)	.627	.865
78	3.82 (.72)	.754	.857

Cronbach α = .879

<표 12> 종교적 사회주의 종교성 문항분석

n=40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계수
3	2.93 (1.11)	.340	.809
9	3.59 (.92)	.557	.780
13	3.42 (.93)	.517	.784
25	2.78 (.91)	.497	.787
33	3.57 (.83)	.506	.786
35	3.18 (.92)	.548	.781
41	2.89 (1.03)	.306	.804
53	3.12 (.83)	.613	.775
69	3.46 (.88)	.462	.791
74	3.51 (.86)	.490	.788

Cronbach α = .806

<표 13> 경건주의 종교성 문항분석

n=40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계수
4	3.92 (1.32)	.273	.732
16	3.52 (1.00)	.427	.699
24	3.59 (.86)	.449	.698
38	3.17 (1.10)	.332	.715
44	3.57 (.92)	.381	.707
52	3.75 (.84)	.472	.695
57	3.23 (1.06)	.398	.704
59	3.15 (1.04)	.471	.692
65	2.93 (.92)	.375	.708
66	3.06 (.94)	.373	.708

Cronbach α = .727

<표 14> 신비주의 종교성 문항분석

n=40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계수
5	3.42 (.95)	.638	.892
12	3.73 (.97)	.711	.887
22	3.75 (.84)	.734	.886
34	4.07 (.67)	.543	.898
42	3.61 (.90)	.497	.901
45	3.62 (.83)	.743	.885
54	3.02 (.93)	.634	.892
60	3.53 (.90)	.683	.889
73	3.67 (.76)	.750	.886
79	2.99 (1.07)	.643	.898

Cronbach α = .901

<표 15> 무신론 종교성 문항분석

n=40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계수
6	1.61 (.68)	.654	.885
23	1.57 (.73)	.666	.883
30	1.77 (.88)	.587	.889
40	1.60 (.70)	.671	.883
43	1.66 (.75)	.728	.879
46	1.68 (.74)	.644	.885
56	1.68 (.74)	.727	.879
62	1.93 (.87)	.649	.884
68	1.70 (.76)	.689	.882
80	2.40 (1.02)	.491	.900

Cronbach α = .895

<표 16> 종교적 불안 종교성 문항분석

n=40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계수
10	3.23(1.14)	.354	.724
15	2.64(.96)	.322	.727
20	3.33(.83)	.409	.714
26	2.46(1.04)	.543	.691
28	2.36(.97)	.319	.727
31	3.54(.87)	.246	.736
37	2.36(.91)	.365	.720
61	2.88(.99)	.540	.692
63	2.19(.89)	.396	.716
76	2.57(.94)	.480	.703

Cronbach α = .736

<표 17> 의미추구 종교성 문항분석

n=40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α 계수
11	4.10(.65)	.531	.666
14	3.38(1.14)	.209	.726
17	3.93(.82)	.473	.668
27	3.74(.96)	.358	.688
32	3.85(.71)	.251	.703
39	3.73(.79)	.315	.694
50	3.70(.79)	.447	.673
55	4.03(.90)	.342	.690
72	3.95(.71)	.519	.664
77	3.50(.84)	.378	.684

Cronbach α = .708

2. 기독교 종교성 척도의 구성타당도

1) 종교성 하위척도들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정통주의는 무신론과는 부적상관을 다른 종교성들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종교적 신뢰는 종교적 불안과는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내지 않고 무신론과는 부적상관을 다른 종교성들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종교적 사회주의는 무신론과는 관련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다른 모든 종교성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경건주의는 다른 종교성들과 마찬가지로 무신론과는 부적 상관을 다른 종교성들과는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신비주의도 무신론과는 부적 상관을 다른 종교성들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무신론은 종교적 사회주의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종교적 불안과만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모든 종교성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종교적 불안은 의미추구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신비주의와 종교적 신뢰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정통주의 종교적 사회주의, 경건주의 무신론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의미추구는 무신론과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종교적 불안과 부적 상관을 다른 종교성들과는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 종교적 사회와 신비주의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 종교성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8> 기독교 종교성 하위 척도 간의 상관관계

n=409

	정통	신뢰	사회	경건	신비	무신	불안	의미
정통	-							
신뢰	.648**	-						
사회	.308**	.239**	-					
경건	.626**	.520**	.370**	-				
신비	.617**	.850**	.251**	.532**	-			
무신	-.505**	-.529**	0.54	-.281**	-.477**	-		
불안	.219**	.036	.279**	.329**	.060	.176**	-	
의미	.481**	.552**	.224**	.287**	.508**	-.576**	-.160**	-

* $p < .05$, ** $p < .01$

2) 기독교 종교성과 접촉경계 혼란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정통주의는 융합과 정적 상관을 편향 및 감각차단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종교적 신뢰는 내사와 정적 상관을 투사·편향·감각차단 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종교적 사회주의는 내사·융합·감각차단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경건주의는 내사·융합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 신비주의는 접촉경계 혼란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다. 무신론은 내사 및 편향을 제외한 다른 접촉경계 혼란들과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종교적 불안은 모든 접촉경계 혼란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의미추구는 내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접촉경계 혼란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

<표 19> 기독교 종교성 척도와 접촉경계 혼란 척도와의 상관관계

n=409

	정통	신뢰	사회	경건	신비	무신	불안	의미
내사	.290**	.108*	.204**	.340**	.081	-.060	.279**	.087
투사	-.054	-.165**	.071	.039	-.089	.280**	.351**	-.306**
반전	-.010	-.075	.092	.053	-.047	.131**	.376**	-.231**
융합	.160**	.005	.259**	.210**	.046	.109*	.410**	-.120*
편향	-.110*	-.232**	.012	-.067	-.199	.197	.318**	-.318**
감각차단	-.090*	-.110*	.110*	.044	-.005	.312**	.240**	-.237**

* $p < .05$, ** $p < .01$

3) 기독교 종교성과 BDI, STAI, SCL-90R과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무신론과 종교적 불안은 BDI와 STAI 및 SCL-90R의 모든 하위척도들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의미추구는 BDI와 STAI 및 SCL-R90의 모든 하위척도들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이들 세 척도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순수한 종교성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 종교적 신뢰성도 BDI와 STAI 및 SCL-R90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의미추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비주의는 신체화를 제외한 SCL-R90의 하위척도들과 BDI·STAI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통주의에서도 SCL-R90의 하위척도인 강박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척도들과 BDI·STAI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경건주의는 SCL-R90의 하위척도인 적대감과 STAI에서만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전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이들 두 척도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0> 기독교 종교성 척도와 BDI, STAI,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와의 상관관계

n=409

	정통	신뢰	사회	경건	신비	무신	불안	의미
BDI	-.172**	-.215**	-.018	-.067	-.150**	.223**	.306**	-.393**
STAI	-.294**	-.345**	-.027	-.177**	-.298**	.300**	.277**	-.435**
신체화	-.133*	-.131**	-.001	-.037	-.086	.223**	.302**	-.367**
강박	-.094	-.219**	.070	-.017	-.186**	.177**	.369**	-.308**
대인민감성	-.100*	-.183**	.037	-.046	-.130**	.143**	.277**	-.270**
우울	-.133**	-.221**	.061	-.038	-.178**	.182**	.321**	-.312**
적대감	-.217**	-.240**	.025	-.177**	-.177**	.285**	.246**	-.338**
공포불안	-.163**	-.199**	.021	-.086	.136**	.352**	.233**	-.353**
편집	-.174**	-.212**	.066	-.054	-.134**	.247**	.247**	-.342**
정신병	-.124**	-.179**	.078	.015	-.114**	.261**	.389**	-.323**
불안	-.108*	-.182**	.090	-.035	-.122**	.224**	.324**	-.337**
GSI	-.150**	-.219**	-.057	-.051	-.158**	.253**	.353**	-.373**

* $p < .05$, ** $p < .01$

3. 기독교 종교성 척도의 기준 타당도

1) 개신교와 천주교인의 집단 차이 비교

정통주의, 종교적 신뢰, 종교적 사회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다섯 가지 종교성은 기독교 종교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개신교 및 천주교 두 집단을 대상으로 종교모임 빈도, 학력, 수입의 변인들을 통제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정통주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종교성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종교적 사회주의에서는 천주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다른 종교성에서는 모두 개신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표 21> 천주교, 개신교 간의 종교성 차이 검증

n=409

종속변인	평균차이 (천주교-개신교)	표준오차	자유도	F
정통주의	-.812	.451	1	3.238
종교적 신뢰	-2.845	.534	1	28.338***
종교적 사회주의	2.372	.557	1	18.135***
경건주의	-2.852	.495	1	33.188***
신비주의	-3.820	.592	1	41.629***

* $p < .05$, ** $p < .01$, *** $p < .001$

2) 천주교와 개신교, 무종교 집단의 차이 비교

무신론, 종교적 불안, 의미추구는 천주교와 개신교 외에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료 수집을 하여, 이들 세 집단을 ANCOVA로 분석하였으며, 학력, 성별, 수입을 통제 변인으로 하였다. 세집단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무종교인은 두 집단 보다 매우 높은 평균을 보이며, 개신교가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다. 종교적 불안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무종교인과는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무종교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추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신

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다른 두 집단보다 무종교인은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표 22> 천주교, 개신교, 무종교 간의 종교성 차이 검증

n=578

종속변인		평균차이	표준오차	자유도	F
무신론	천주교-개신교	1.950**	.579	2	23.021***
	천주교-무종교	-4.280***	.826		
	개신교-무종교	-6.230***	.919		
종교적 불안	천주교-개신교	.866	.539	2	33.452***
	천주교-무종교	6.292***	.769		
	개신교-무종교	5.426***	.856		
의미추구	천주교-개신교	-.654	.448	2	10.566***
	천주교-무종교	2.575***	.640		
	개신교-무종교	3.228***	.712		

* $p < .05$, ** $p < .01$, *** $p < .001$

3) 개신교 여성의 임상집단(우울·불안 환자)과 비 임상집단의 차이 비교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은 모두 개신교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30~50로 연령을 제한하였다. 이 두 집단을 ANOVA를 실시하여, 차이를 검증하였다. 정통주의와 신비주의, 무신론에서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교적 신뢰, 종교적 사회주의 경건주의 의미추구, 종교적 불안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신론과 신비주의를 제외한 다른 종교성에서 모두 비 임상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보인다.

<표 23> 비임상집단과 임상집단(우울.불안 환자)의 종교성 차이 검증

n=145

종속변인		평균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정통주의	비임상집단	37.41	16.691	1	16.691	.880
	임상집단	36.45				
종교적 신뢰	비임상집단	39.25	99.623	1	99.623	4.918*
	임상집단	36.90				
종교적 사회주의	비임상집단	31.66	507.619	1	507.619	17.051***
	임상집단	26.36				
경건주의	비임상집단	36.34	561.421	1	561.421	22.460***
	임상집단	30.71				
신비주의	비임상집단	37.64	92.254	1	92.254	3.562
	임상집단	39.90				
무신론	비임상집단	17.14	3.560	1	3.560	.122
	임상집단	17.59				
종교적 불안	비임상집단	27.08	125.204	1	125.204	5.832*
	임상집단	24.45				
의미추구	비임상집단	37.55	345.887	1	345.887	21.849***
	임상집단	33.18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김정규(1988)가 독일에서 개발한 종교성 척도가 다른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변안하고, 척도를 타당화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척도는 널리 쓰이고 있는 Allport(1976)의 성숙-미성숙 종교성 척도가 너무 단순하며, 심리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사적, 신학적,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8개의 종교성 차원들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규(1988)의 종교성 척도 한국판은 Cronbach α 계수가 .70~.90으로, 신뢰도가 높다.

둘째, 구성타당도를 위한 상관연구에서 Pearson 상관분석을 한 결과, 종교성 각 하위 척도들 간에 매우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접촉경계 혼란 및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이하STAI),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이하 SCL)등의 다른 정신건강 관련 하위 척도들과도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는 확보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통주의는 무신론과는 매우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다른 하위 척도들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접촉경계 혼란의 융합과는 정적 상관을, 편향·감각차단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Kim(1988)의 경험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정통주의 종교성을 통해 신자들은 공동체와의 연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정통주의가 대인관계 의존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했는데, 융합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낸다. BDI, STAI, SCL과는 강박증 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 척도들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와 마찬가지로 무신론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정통주의와 종교적 신뢰와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접촉경계혼란의 내사·융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STAI와 SCL의 적대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다른 종교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척도들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비주의 종교성은 정통주의 및 종교적 신뢰성과 매

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무신론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척도들과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접촉경계 혼란과는 전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SCL의 공포불안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체화를 제외한 다른 하위 척도들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비주의 종교성은 초월적 신비적 영역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험은 연결성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정규, 2007). 이러한 특성을 보았을 때 접촉경계 혼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Kimm(1988)의 연구에서 폐쇄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를 공포불안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종교적 신뢰와 무신론은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다른 차원들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 접촉경계 혼란에서는 투사 및 편향·감각차단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관련이 높으며, BDI, STAI, SCL과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 정신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종교적 사회주의는 무신론과는 관련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차원들과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접촉경계 혼란에서는 내사와 융합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정신건강 관련척도들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교적 불안과 종교적 신뢰·신비주의 차원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정통주의·종교적 사회주의·경건주의 차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의미추구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접촉경계 혼란의 하위척도와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 정신건강 관련 척도들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Kim(2007)이 개인의 통합성과 내면의 연결성을 저해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무신론은 종교적 사회주의와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며, 종교적 불안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다른 차원들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구별되는 개념으로 드러났다. 또한 투사·반전·융합·감각차단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정신건강 척도들과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의미추구 역시 다른 차원들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무신론·종교적 불안과는 부적 상관, 다른 종교 차원들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내사를 제외한 다른 접촉경계 혼란 척도들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BDI, STAI, SCL과는 매우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Kim(1988)의 연구에서 우울증, 공격성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인 것과 일치한다.

셋째, 기준 타당도 검증을 위해 ANCOVA를 실시한 결과, 천주교·개신교인 간의 종교성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종교적 신뢰, 종교적 사회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네 가지 차원에서 기준 타당도가 확보 되었으며, 종교적 사회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차원들에서 모두 개신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준 타당도 검증을 위해 ANCOVA를 실시한 결과, 천주교·개신교·무종교인 간의 종교성 차이는 모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도 기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천주교·개신교인 간의 종교적 불안과 의미추구 차원에서는 차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신론·종교적 불안·의미추구에서 나머지 집단 간 차이는 모두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기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임상과 비 임상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30~50대의 개신교 여성을 대상으로 비 임상집단과 임상집단(우울·불안으로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을 나눠, ANOVA를 실시한 결과, 종교적 신뢰·종교적 사회주의·경건주의·종교적 불안·의미추구 차원에서 모두 더 높은 점수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기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종교적 불안에서 비 임상집단이 임상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종교적 불안이 경건주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건주의에서 비임상집단이 매우 높은 점수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성 하위척도들 간의 관계나 다른 정신건강 관련 척도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후 AMOS등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둘째, 문항 분석에서 문항과 척도간의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들을 척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후의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문항 수정을 거치기를 제안한다.

셋째,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의 피험자 수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동질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넷째, 다른 종교성 척도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분석을 시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척도들이 단순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다른 척도와의 차별성을 뚜렷

하게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Allport(1976)의 성숙-미성숙 종교성 척도는 특정 종교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김정규(1988)의 종교성 다섯 가지 차원은 기독교에 한정되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의 폭을 좁힐 수 있고,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정규(2007)는 불교나 유교적 종교성에서도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종교성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이번 종교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였으므로, 척도가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종교 성을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 에스더 (2005). 종교성 및 종교정향이 문제 책임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광기 (2004). 종교성이 청소년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6(12), 179~199
- 김정규 (2007). 게슈탈트 심리치료와 종교성. 미래사회와 종교성 연구원.
- 김정규 (2003). 비파사나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합한 불안장애의 게슈탈트 심리치료. 22(3), 475~503.
- 김정규 (2007). 게슈탈트 심리치료와 종교성. 미래사회와 종교성 연구원.
- 김진원 (1995). 종교와 삶의 의미수준,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반신환 (2005).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 상담: 우울증과 종교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0, 33-52.
- 유계식 (2001). 접촉경계장애의 남녀 차이. 여성건강. 2(2), 75-96.
- 성숙진 외 (2006). 여성, 성격발달 및 종교성의 관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0, 582-583
- 한국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 한국갤럽.
- 한내창 (2000). Allport & Ross의 I/E 종교성 척도 평가. 종교교육. 5, 257-280.
- 한내창 (2001).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 35(6), 193-215.
- 한내창 (2001). 종교성에 대한 한 경험적 논의. 원불교사상. 25(0), 139-158.
- 한내창 (2002).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6(3), 157-182.
- 한내창 (2004). 종교성과 주관적 삶의 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7, 179-204.
- 전명수 (2005). 현대적 불안의식과 종교의 역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종교연구. 41, 37-59.
- 박외숙 (2004). 가정배경과 게슈탈트 접촉경계 유형 간의 관계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8(4), 1-15.

- Allport, G. W., & Ross, J. W.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Kim, J. K.(1988). Strukturelle Zusammenhaenge zwischen Religiositaet und Persoenlichkeit im Rahmen einer psychologischen Diagnostik. Doktorarbeit der Universitaet zu Bonn.
- Batson, CD and Schoenrade, PA. (1991) Measuring Religion as Quest: 1) Validity Concerns. *J for The Sci Study of Religion*. 30(4), 416-429.
- Batson, CD and Schoenrade, PA. (1991) Measuring Religion as Quest: 2) Reliability Concerns. *J for The Sci Study of Religion*. 30(4), 430-447.
- Baker, Mark and Richard Goruch. (1982). Trait Anxiety and Intrinsic-Extrinsic Religiousnes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1, 119-122.
- Belzen, Jacob A. (1992) The Psychology of Religion: European Historical Perspectives. *Religion and Mental Health*. 33-42.
- Borras, L. et. al. (2007) Religious Beliefs in Schizophrenia: Their Relevance for Adherence to Treatment. *Schizophrenia Bulletin*. 33;5, 1238-1246.
- Bridges, Robert A. and Bernard Spilka. (1992) Religion and Mental Health of Women. *Religion and Mental Health*. 43-53.
- Bruce E. Atkinson (1994). Religious Matur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Dhristian Women.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Psychology of Religion*. 4(3), 165-179.
- Gartner, John, Dave B. Larson, and George D. Allen. (1991) Religious Commitment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 6-25.
- Graff, R.W. & LADD, C.E. (1970) POI Correlates of a Religious Commitment Inventor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Ellison, C. G., Gay, D. A., & Glass, T. A. (1989).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68, 100-123.
- Hongtu Chen, et al., (2007) Religious participation as a predictor of mental

- health status and treatment outcomes in older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2(1), 44-153.
- Hood, Ralph W. Jr. (1992) *Sin and Guilt in Faith Traditions: Issues for Self esteem. Religion and Mental Health*. Oxford Univesity Press.
- Kennedy, Gary J. (1998) Religion and Depresssion. *Handbook of Religion and Mental Health*. 129-145.
- King, Michael and Walter E. Schafer. (1992) Religiosity and Perceivied Stress: A Community Survey. *Sociological Analysis*. 53(1), 37-47.
- Koenig, H. et. al. (1992) Religiou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Hospitalized Medically Ill Men, *Am J of Psychiatry* 149(12), 1693-1700.
- Kraus, J. (1969) Some social factors and rates of psychiatric hospital admissions ofimmigrants in New South Wales.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ii. 17.Lane, M. (1968)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5, 261-8.
- Lloyd, J.H. (1973) Religion and insanit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7, 193.
- Pargament, KI et. al. (1990) "God Help Me: (I): Religious Coping Efforts as Predictors of The Outcomes To Significant Negative Life Events," *Amer J of Community Psych*. 18(6): 793-824
- Plymouth (1972) Moorhaven Hospital Diagnostic Index. Personal communicantion.
- Pfeifer, S. and Waelty, U. (1995) Psychopathology and religious commitment: A controlled study. *Psychopathology* 28:70-77.Reinert, Duance F and Bloomingdale, John R. (1999) Spiritual Maturity and Mental Heal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Counseling & Values*. 43;3, 211-223.
- Roberts, F.J. (1965)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 185-7.

Samuel Pfeifer and Ursula Waelty (1999) Anxiety, depression, and religiosity: A controlled clinical study.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2:1, 35 - 45 .

S.M. Razali, C.I. Hasanah, K. Aminah and M. Subramoniam. (1998) Religious-sociocultural psychotherapy in patients with anxiety and depress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2:867-872.

Strayhorn, JM et. al. "A Measure of Religiousness, and Its Relation To Parent and Child Mental Health Variables," *J of Community Psych*. 1990, 18:34-43

Ventis, W. L.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51, 33-48.

Wulf, D. M. (1991). *Psychology of religion : Classic and contemporary views*. New York: John Wiley & Sons.

ABSTRACT

Validation of the Christian Religiosity Scale

Kim, Hi-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is for adequating with adapted from Korean through christian religious standard by Kim Jung-Kyu(1988). Religious nature is composed by 8 kinds of subordinated index with legitimism, faith theory, socialism, pietism, mysticism, atheism, religious fear, meaning pursuit as multidimensional idea. For the research I collected data of adult over 20yrs in Seoul, Kyunggi and there are acted out by 192 catholic people, 217 Protestant, people without religion. I applied christian religious standard as measurement material, K-BDI, K-SAIT, contact boundary confusion standard, SCL-90R.

The result of research is like the following. First, α sum was high like .72 ~.90 with analysis of reliability. Second, the result of ANCOVA test for verification of difference between Protestant and Catholic, it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from religious subordinated index, faith theory, socialism, pietism, mysticism, atheism. Third, after ANCOVA test for verification among Protestant, Catholic, atheism, there were difference with atheism, religious fear, meaning pursuit standard. The fourth, as a result of ANOVA analysis for verification of difference among 20th to 30th women in Protestant, it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with religious subordinated standard, atheism, meaning

pursuit, religious fear.

All things considered above the christian religious standard by Kim, Jung-Kyu(1988) was trustful and showed suitable result as constructional feasibility and standard feasibility etc. However, as a limitation christian religious standard, there is a restrictive point like it is hard to get universal research with various religion including atheists.

No. _____

설문지

- 종교인(개신교, 천주교)을 중심으로 -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다양한 종교성의 차원이 불안과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내용은 특정개인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종교인**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의 응답내용은 확실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써 소중하게 사용될 것 입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계슈탈트 연구실

지도교수 김 정규
석사과정 연구원 김희정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I. 아래에 귀하의 종교관 또는 세계관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믿으시거나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질문의 왼쪽에 표시된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내가 다니는 교회(성당)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이 내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1	2	3	4	5

2	나는 하나님(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자주 행복을 느낀다.	1	2	3	4	5
3	예수는 세상의 불의와 억압에 대항하여 싸운 최초의 사회주의자였다.	1	2	3	4	5
4	내 신앙의 가장 큰 의미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1	2	3	4	5
5	나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6	종교는 이제 낡은 이념이며, 건전한 이성을 혼란 시킬 뿐이다.	1	2	3	4	5
7	목사(신부)님 설교(강론)는 내 삶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1	2	3	4	5
8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하느님)께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며, 새로운 힘을 얻는다.	1	2	3	4	5
9	기독교 정신의 중심은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다.	1	2	3	4	5
10	죄와 악행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다.	1	2	3	4	5
11	수 없는 절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1	2	3	4	5
12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1	2	3	4	5
13	기독교인은 무엇보다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	1	2	3	4	5
14	인생에서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	2	3	4	5
15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는 자주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16	흔전 순결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	2	3	4	5
17	내가 하는 일에 아무런 보람과 의미를 못 느끼겠다.	1	2	3	4	5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8	성례전(성찬, 성사, 세례)을 통하여 은총을 받게 되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성당)의 성례전에 참여해야 한다.	1	2	3	4	5
19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날마다 삶을 힘차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준다.	1	2	3	4	5
20	계명이나 교회의 지침을 어길 때마다 나는 자주 죄의식과 불안에 사로잡힌다.	1	2	3	4	5
21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하느님)께서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22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나는 자주 하나님(하느님)을 가까이 느낀다.	1	2	3	4	5
23	종교는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조작한	1	2	3	4	5

	상품에 불과하다.					
24	기독교인은 항상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	1	2	3	4	5
25	오늘날 하나님(하느님)에게 이르는 진정한 길은 사회적 참여이다.	1	2	3	4	5
26	가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	1	2	3	4	5
27	내가 왜 사는지 종종 회의가 든다.	1	2	3	4	5
28	가끔 나의 나쁜 충동 때문에 정신적인 위협을 느낀다.	1	2	3	4	5
29	나는 날마다 하나님(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함을 느낀다.	1	2	3	4	5
30	종교는 사회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해로운 이념이다.	1	2	3	4	5
31	인간은 내면에 항상 나쁜 충동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욕망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1	2	3	4	5
32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직업에서 얼마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냐는 것이다.	1	2	3	4	5
33	사회 빈곤층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1	2	3	4	5
34	하나님(하느님)은 항상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1	2	3	4	5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5	예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정의와 인류평화를 위해 싸우라고 명하신다.	1	2	3	4	5
36	하나님(하느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은총을 내리신다.	1	2	3	4	5
37	불치병이나 자연재앙은 하나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다.	1	2	3	4	5
38	훈외정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이다.	1	2	3	4	5
39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고통이나 죽음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	1	2	3	4	5
40	종교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바보로 만든다.	1	2	3	4	5
41	하나님(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1	2	3	4	5
42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나뭇가지에 움이 트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자주 하나님 (하느님)의 존재를 느낀다.	1	2	3	4	5
43	오늘날 신의 개념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단지 우리의 생각을 혼란 시킬 뿐이다.	1	2	3	4	5
44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이기적	1	2	3	4	5

	욕망과 음욕 때문이다.					
45	나는 가끔 욕상이나 기도 가운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하느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	1	2	3	4	5
46	종교적 사고는 올바른 현실인식을 방해하며, 건설적인 사회개혁에 장애물이 된다.	1	2	3	4	5
47	교단의 공식적 가르침과 지침이 나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준다.	1	2	3	4	5
48	내게 하나님(하느님)은 별주시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나 걱정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편안한 대상이다.	1	2	3	4	5
49	교회는 하나님(하느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수행하는 주체다.	1	2	3	4	5
50	나는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도 항상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51	살면서 역경에 처할 때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하느님)께 말씀 드리고 내맡긴다.	1	2	3	4	5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52	단지 하나님(하느님)을 믿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거듭남으로써 속죄해야 한다.	1	2	3	4	5
53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빈곤과 사회갈등, 차별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1	2	3	4	5
54	때로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신비로운 체험과 인식에 도달한다.	1	2	3	4	5
55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며, 모두 무의미해진다.	1	2	3	4	5
56	신을 믿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1	2	3	4	5
57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영혼의 구원이다.	1	2	3	4	5
58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59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	1	2	3	4	5
60	나는 하나님(하느님)의 보호와 인도로 위험한 일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1	2	3	4	5
61	나는 하나님(하느님)의 진노 하심과 사탄의 공격이 두렵다.	1	2	3	4	5
62	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준다.	1	2	3	4	5
63	나쁜 인간은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려 죽는다.	1	2	3	4	5
64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1	2	3	4	5

	모임이다.					
65	진정한 신앙이란 죄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죄책감이 사라진 상태이다.	1	2	3	4	5
66	오늘날 인간들은 음욕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1	2	3	4	5
67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와 독립된 나만의 진정한 신앙을 갖고 싶다.	1	2	3	4	5
68	신이라는 개념은 내게 별로 의미가 없으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69	내게 있어 기독교의 핵심은 이웃사랑과 공동체 정신이다.	1	2	3	4	5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70	나는 하나님(하느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미래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71	그리스도인은 다른 장소에서보다 교회에서 하나님(하느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1	2	3	4	5
72	나는 인간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3	나는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묵상할 때, 혹은 무엇을 간구하거나 소망할 때 자주 하나님(하느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	1	2	3	4	5
74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다.	1	2	3	4	5
75	교회(성당)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근본이다.	1	2	3	4	5
76	“죄”라든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쿵광거린다.	1	2	3	4	5
77	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78	살면서 항상 하나님(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79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신앙체험 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80	인간은 마침내 종교의 명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1	2	3	4	5

II. 이 질문지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낸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들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적절한 답이 있을 뿐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숫자에 즉시 떠오르는 대로 ○표로 응답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까운 사이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내세워선 안 된다. 나는 나의 감정이 어떤지 모를 때가 있다.	1	2	3	4	5	6
2	나는 많이 참으며 살아왔다.	1	2	3	4	5	6
3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현명하다.	1	2	3	4	5	6
4	나는 내 신체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5	나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타인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1	2	3	4	5	6
6	내 자신이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우리 가족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공동전선을 폈다.	1	2	3	4	5	6
8	나는 불편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9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한다.	1	2	3	4	5	6
10	나는 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11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꾸면 내가 훨씬 행복해질 것 같다.	1	2	3	4	5	6
12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3	사람들이 제발 서로 의견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1	2	3	4	5	6
14	종종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하곤 한다.	1	2	3	4	5	6
15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지낸다.	1	2	3	4	5	6
16	나는 종종 멍하다.	1	2	3	4	5	6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주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되는 때가 많다.	1	2	3	4	5	6
18	나는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한 편이다.	1	2	3	4	5	6
19	가까운 사람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1	2	3	4	5	6
20	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것이 많다.	1	2	3	4	5	6
21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1	2	3	4	5	6
22	여간한 일로는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1	2	3	4	5	6
23	사람들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것 같다.	1	2	3	4	5	6
24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25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26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긴장되고 통증을 느낄 때가 있다.	1	2	3	4	5	6
27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일들도 있다.	1	2	3	4	5	6
28	나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5	6
29	사람들은 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 같다.	1	2	3	4	5	6
30	내 삶은 변화가 많고 흥미롭다.	1	2	3	4	5	6
31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32	나는 종종 죄책감이 들거나 짜증이 난다.	1	2	3	4	5	6
33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34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돌보지 않는다.	1	2	3	4	5	6
35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할 것 같지 않다.	1	2	3	4	5	6
36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	1	2	3	4	5	6
37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셨다.	1	2	3	4	5	6
38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	1	2	3	4	5	6
39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0	내 신체 감각이 어떤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1	2	3	4	5	6
41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안다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1	2	3	4	5	6

42	대화를 하다가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 버린다.	1	2	3	4	5	6
43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이 더 좋다.	1	2	3	4	5	6
44	내 자신에 대해 화날 때가 많다.	1	2	3	4	5	6
45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46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1	2	3	4	5	6
47	사람들을 보면 모두 나보다 나은 것 같다.	1	2	3	4	5	6
48	말할 때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는 버릇이 있다.	1	2	3	4	5	6
49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50	나 자신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	1	2	3	4	5	6
51	사람은 서로 간에 반드시 신의를 지켜야 한다.	1	2	3	4	5	6
52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도 좀처럼 놀라지 않는다.	1	2	3	4	5	6
53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다.	1	2	3	4	5	6
54	구체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일반화하는 습관이 있다.	1	2	3	4	5	6
55	내 자신을 찾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6
56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일인데도 결국 나 자신을 책임지게 된다.	1	2	3	4	5	6
57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1	2	3	4	5	6
58	사람들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1	2	3	4	5	6
59	나는 별로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다.	1	2	3	4	5	6
60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요청해야 한다.	1	2	3	4	5	6

III.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해당되시는 곳에 ○표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_____ 여자_____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졸

4. 귀하께서는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1) 천주교

2) 개신교 (가. 예수교 장로회 나. 기독교 장로회 다. 감리교 라. 성공회
마. 성결교회 바. 안식교 사. 여호와의 증인 자. 모르몬교)

* 개신교인은 세부항목에도 표시해주십시오.

3) 무종교 4) 기타 ()

5. 월소득이 다음의 범주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1) 100만원 이하 2) 100-200만원 3) 200-300만원 4) 300-500만원
5) 500만원 이상

6. 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종교모임 (교회, 성당)에 참석하십니까?

1) 전혀 안함 2) 가끔 3) 자주 4) 매주 1회 5) 매주 2회 이상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